

전국 절터 5393곳 집대성됐다

문화재청, '한국 사지 총람' 발간... '한국의 사지(서울·인천·경기편)' 도

전국의 사지 5393곳과 그 곳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문헌 및 현재까지의 자료가 집대성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최근 “(한국 사지 총람)과 이를 기초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폐사지에 대한 정밀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담긴 현황보고서 《한국의 사지(서울·인천·경기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총람에서 연구소 등은 조계종 총무원이 1997~1998년 발간한 <불교사원지(佛敎寺院址)에 수록한 2141개 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393개소의 사지를 조사해 수록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 편),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 편),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攬)>(1977년 편)과 1990~2000년대 문화유적 분포지도(文化遺蹟分佈地圖) 등 옛 문헌과 연구자료를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자리한 대표적인 폐사지인 보원사지. 보물인 5층석탑과 당간지주 등 문화유적으로 가치가 높다.

만연해 사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사지 636건(《한국의 사지(서울·인천·경기편)》)에 관한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유형 조사 등을 통한 폐사지 현황 및 사역확인, 식생, 유구·유물수습,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유구가 잘 남아 있는 사지의 경우 평판측량을 병행했고, 현재 상태에서 수목(樹木)에 의한 사지의 피해 등을 파악해 기존의 인문학자 현황 외에 처음으로 자연학적 식생현황(植生現況)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사 중이다. 올해는 부산·광주·전남·제주지역 600여 개소에 대한 폐사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총람 및 현황보고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 간행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무공덕(無功德)

어린 시절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적덕(積德)’이라고 배웠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덕을 쌓는 행위야말로 상대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안락케 하는 초석이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덕이란 주관적이다 보니 받는 쪽이 별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부족하다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힘으로 덕행이다. 공덕이라는 말은 <화엄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에서 무수히 기술돼 있다. 무제와 달마의 만남에서 공덕에 대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9권은 불일설승(佛日契嵩, 1007-1072)이 저술했다. 내용은 불법상승의 차례를 인도로부터 시작해 동토 6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선종전승들의 정통설을 주장할 목적으로 저술했

았음을 알고 갈대잎에 몸을 의탁하고 양자강을 거슬러 북위로 향했다. 후일이 모습을 노엽달마도(蘆葉達摩圖)로 표현했다. 당시 달마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무제는 후일 달마의 입적 소식을 듣고 친히 달마의 비문을 지어 사묘의 정을 토로했다.

여기서 달마의 무공덕(無功德)을 재미로 해 보고자 한다. 공덕은 범어로 punya라 한다. punya는 ‘길조’이고 ‘경사스럽고’ ‘도덕적인 공로’이고 ‘종교적인 공적’을 뜻하는 말이다. 무공덕이란 공덕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범어의 mu는 ‘침묵’이라던가 ‘허를’ 묶어 놓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무공덕은 공덕이 있었다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있다’, ‘없다’의 상대를 떠난 절대 무(無)라고 보아야 옳은 견해라고 본다. 예화를 들어보면 <무문관(無門關)> 제1칙 조주구사(趙州狗子)에서도 “개에

양무제가 공덕 물으니 달마 ‘無’라 답해 공덕 있고 없고 떠난 절대 무의 뜻 담겨

다. 이 책 ‘달마집’ (대정장51, p.473), <벽암록> 제1칙(대정장48, p.140)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돼 있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물었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사경하고 승려를 육성한 것은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무공덕이다.”

“어째서 무공덕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그것은 단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작은 과보로서 유무복덕의 인에 불과합니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비록 과보가 있다고 해도 진실한 과보는 없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정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은 세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제의 언행에 달마는 시절인연이 닿지 않

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남자의 질문에 조주는 무(無)라고 답한다. 이때 무는 있었다면 혹은 없다는 상대적 개념을 떠난 절대무가 아니던가. 아울러 <화엄경>에서 10지보살이 되면 무생심(無生心)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도 무생이란 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생과 사를 벗어난 절대의 진리를 말한다. 불자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산해연선사발원문’에 “무생법인 이론 뒤에”에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불생불멸의 이치에 철저한 깨달음을 말한다.

지에밭의 고소한 맛은 허로 느끼겠지만 이제 조주의 무나 <화엄경>의 무생심이나 ‘발원문’의 무생법인에서 보이는 무의 이해는 전신으로 체득할 일이다.

일전에 한 위경자의 기도 모습에서 느낀 바가 많았다. 달마가 무제의 위에 에 위축되지 않고 늠름(凜凜)하게 법을 펴던 그 자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불교는 회오리바다 마냥 밤송이 속에 외로로 들어 앉아 있는 밤은 아니지 않느냐. 또한 지어농조(池籠籠鳥: 못 속의 물고기와 새장 속의 새)도 아니다.

이렇게 달마는 시절인연이 닿지 않

동국대 석학교수

‘화엄경문답’ 저자 논란 끝나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5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금강대(총장 조병조) 불교문화연구소는 3월 25~26일 서울 관문사에서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주제로 제5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화엄경문답>의 연구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김상현 교수는 강연에

서 <화엄경문답>의 저자와 관련한 연구의 진전 상황을 정리하고 그 연구사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호 세히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의 ‘화엄경문답’의 배제체불문의 지론 중 ‘삼계교의 영향’ ‘삼장진영 교수(원광대)의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일승정토사상(一乘淨土思想) 연구’ 등이 발표된다.

26일에는 △김천학 교수(금강대)의 ‘일본화엄문헌에서의 화엄경문답’ 인용 경향’ △천용희 교수(중국의 ‘화엄경

문답)과 범장의 화엄경 교의학’ △요시 저 오시데 교수(일본 고자마와대)의 ‘화엄경문답’에서의 성기와 연기의 비교’ △최연식 교수(목포대)의 ‘화엄경문답’의 삼승극과 회심의 사상적 의의’ 등이 발표된다.

<화엄경문답>은 중국 범장 스님로 계속 전해져 왔으나 1985년 일본 가마다 선생이 저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후 90년대 김상현 교수가 신라 지동 스님의 저작으로 주장한 바 있다. 천진영 기자



문화재청 모바일로 ‘힐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문화재 정보를 바로 검색 할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3월 11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기념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 전국 문화재 1만 1044건을 스마트폰 중 안드로이드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문화와 문화유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문화와 문화유산’ 서비

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문화재 행정 50주년을 맞는 10월 2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궁·능 촬영허가민원, 스마트폰 간행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향후 문화재 관리대상, 공지사항 등 내부공무원을 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042)481-4760 노덕현 기자

반출된 우리문화재 14만점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많아

해외로 반출된 한국문화재가 14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최근 “2010년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실태조사결과 기존의 11만6896점에서 2만3000여 점 늘어난 14만5600점이 20개국 549개 기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2만3000여 점은 미국 9675점, 독일 8510점, 일본 3922점, 러시아 1315점, 캐나다 241점 등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98개, 독일 지역 16개 박물관 및 도서관 등 한 국문화재 소장기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문화재에 대한 목록 작업을 실시했다. 또, 일본 중국 등지의 한국 문화재 소장 기관에 대한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의 집계 결과,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6만5000여 점이 있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3만8000여 점, 독일 1만여 점 순이었다.

조동섭 기자

“신뢰 받고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빌미부정·귀물·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해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호사 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호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시작

육임학당 호사숙 후반 제2기 육임술 개강 안내

1. 육임학당 호사숙에서는 현재 **도술반**(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과 **일반과정**(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오는 **4월1일(금요일)부터** 개강하는 **후반 제2기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날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 2시간은 기초·기본을, 후 2시간은 일반과정을 진행합니다.
3. 강의로 120만원(호사육임강원 2011제8판본 교재 35만원 별도)을 내면 **일반과정을 이수하고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성했습니다.
4. 금요일 기초·기본 및 일반과정을 수강하고 **토요일 도술반 강의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의 진행은 가장 큰 효과를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5. 저의 소명과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은 입장하십시오. 큰 도움을 얻어 활인천역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최종전화 010-8788-8513**. 위치약도는 <http://한국육임학회.넷> 첫 장 팝업 ‘약도 바로가기’를 참조하십시오.

육임으로 판단하는

시보, 내정, 초사 과격상의, 내외사 유무, 상하(남녀) 이해사 유무, 표리사 유무, 방문시간과 월장관계에서 제출되는 번수상의, 방문자별 자객지정 등등을 한 번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일생의 대계 명시, 고비전년사 명시, 초년 중년 말년 운세 명시, 사법 행정 의무고시 합격자 확정 명시, 육임사복법 인물류에 의한 개개별 신분 직업 확정 명시, 평생 나이별 운세 명시, 파벌 운세 명시, 평생 나이별 신분 가정 직장관계 번수사정 명시, 재부 형제부족 전택부 자식부 노부부 부부부 집액여부 거주주택부 관록부 노후부 상모형태 명시, 당면 정황 및 비밀사정 명시, 남녀 혼인기 명시, 배우자 용모 정질 명시, 육친별 신재장애사 명시, 귀신, 부정, 귀물, 산소탈 및 묘지 속 상태 명시, 이의 각 해소지점 명시, 운세별 변화직업 명시, 수명관계 명시, 개개별 고질병 치유 불치유 관계 명시, 평생 조력 해독관계 명시, 가정사 면도 명시 등등-

1인의 육임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디서부터 그 사람의 일생사 및 당면사가 한 번 한 눈에 판단되도록 정형화로 구성, 그 백인백색적인 해석을 불식시키고, 판단의 일민화를 완성하여 여러분의 사역에 간판하되 더 높고 더 큰 차원으로의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육임운명판단법을 한 번 한 눈에 1인 및 그 가족 전체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만 1년이 소요되었고, 위의 모든 법칙을 사실적 명시로 한 자 한 자 정형화 시키는 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龜命數

고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第1券 甲子旬)

庚子日·乙丑日·丙寅日·丁卯日·戊辰日·己巳日·庚午日·辛未日·壬申日·癸酉日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배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번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별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 육임활용서 - ■ 호사육임복변집 (좌정용 / 각 일별 60권) ■ 호사육임산책 (휴대용 / 각 순별 6권) ■ 도사에게물어봐 (1권) ■ 육임풍수 (1권) ■ 불가법요집 (1권)
- 저자 저술안내 ■ 육임래정비법핵심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1년신수비결 (1권) ■ 출산길일길사선택비법 (1권) ■ 호사육임사주잠정법 (1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육임학습서 - ■ 호사육임강론상·하 (2011 제8판 최종본) ■ 호사학습요지 (1권) ■ 육임도정비법 (좌정용1권 / 휴대용6권) ■ 도정지 (1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육임학습서 - ■ 호사육임강의비디오 (96개) ■ 위 각 활용·학습서는 2011 개정·증보판을 입니다.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콘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